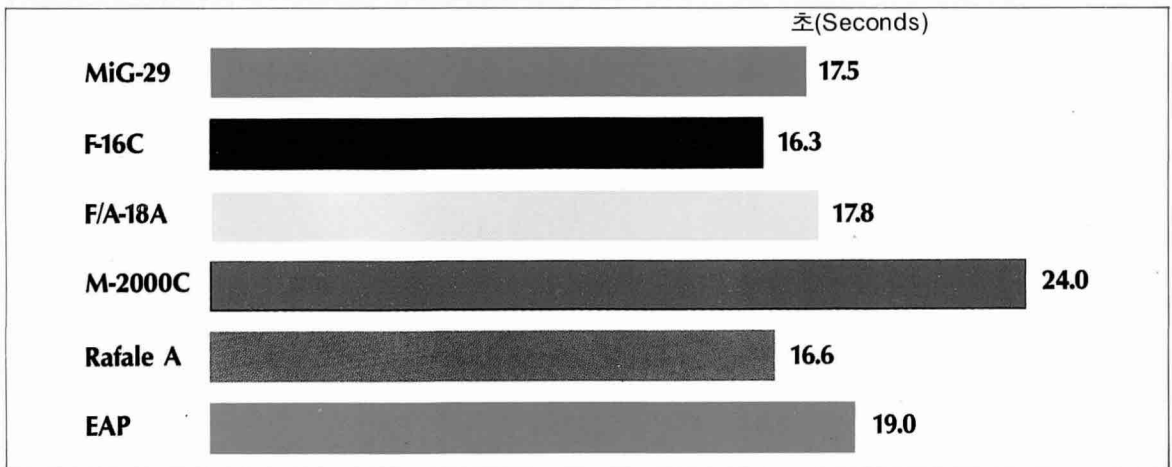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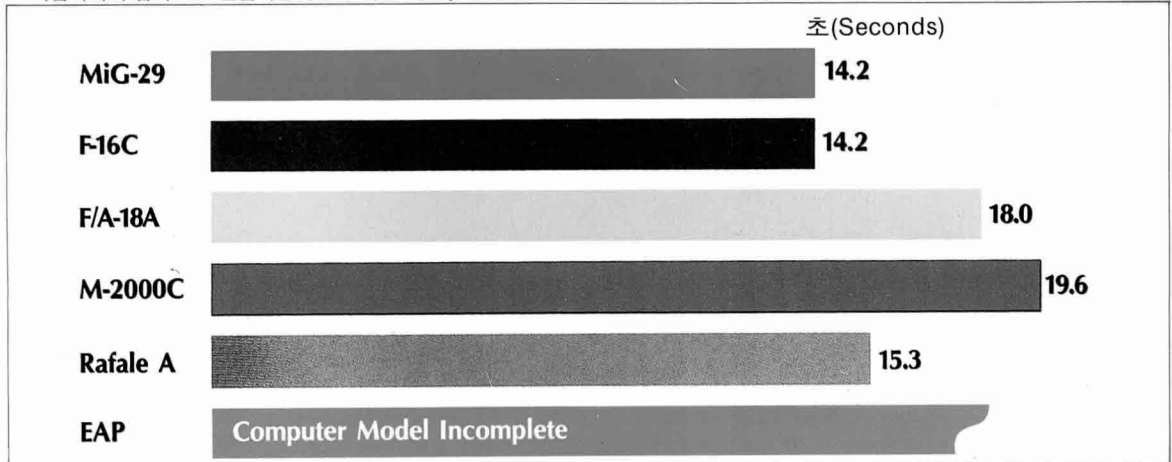


▲ KFP사업 결정으로 전력증강과 함께 첨단기술에의 산업 파급효과가 큰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



▲ 주요 전투기의 360° 선회성능(360° Turn Demonstration) 비교

▼ 아음속에서 음속으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(Subsonic Acceleration Performance) 비교





▲ 이번 걸프전에서 美 공군의 F-16은 총 2백10대가 참전하여 1만1천회의 출격회수를 기록하였으며, 96%의 가동율을 보였다

## 한국 전투기 사업(KFP), F-16으로 최종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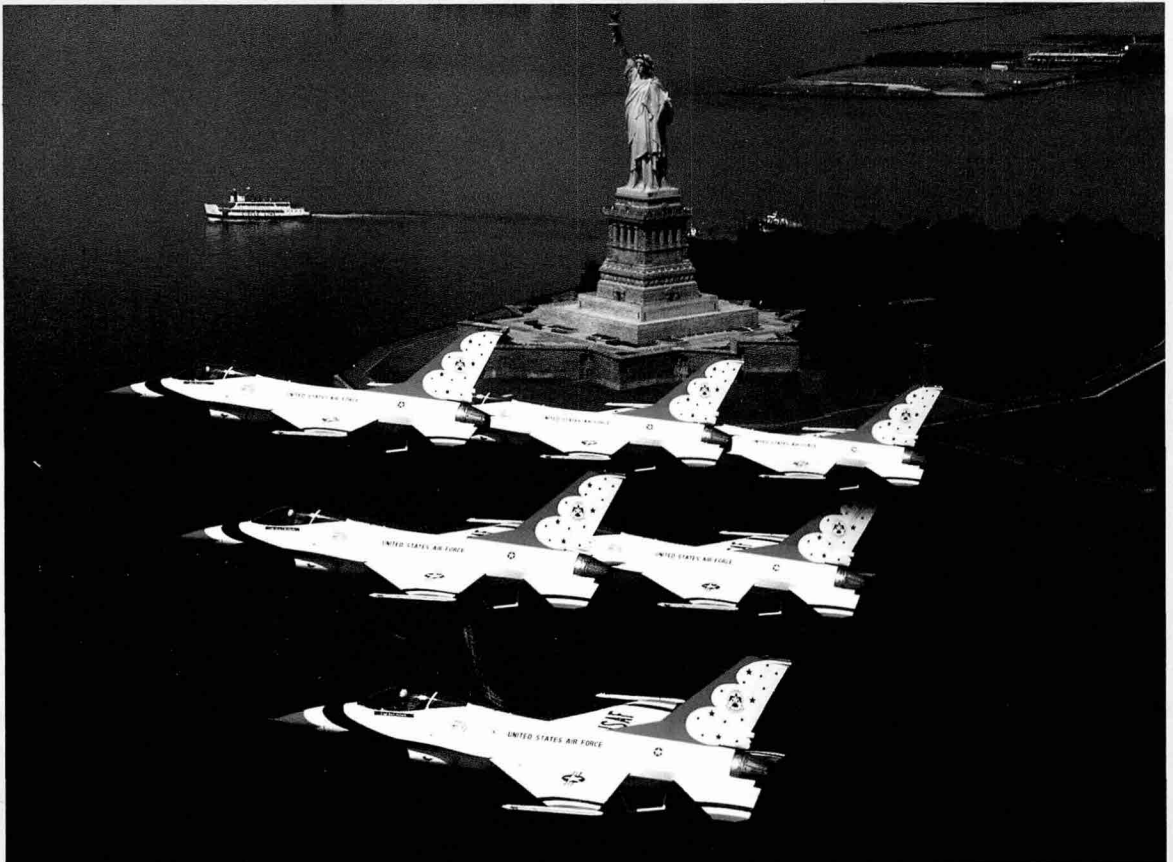
—1994년부터 1백20대, 52억불에 도입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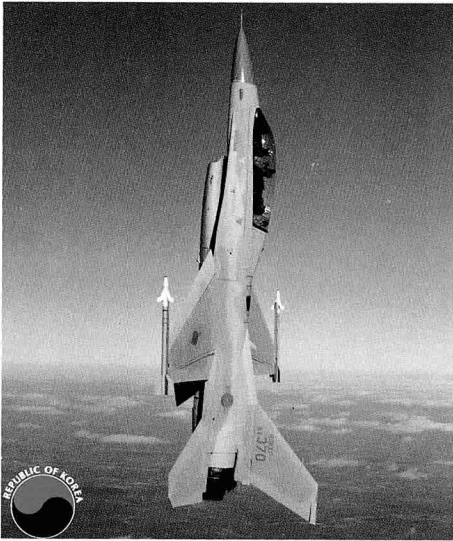
KFP사업의 주력기종으로 F-16이 최종 선정되었다. 이번의 기종변경에 따라 KFP기종은 향후 30년간 총 순기비용에서 약 20억불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. 이번 KFP의 F-16은 '94년도에 생산될 BLOCK 50/52형으로서, 인공위성 항법장비(GPS), 야간저고도 침투 및 공격장비(LANTIRN), 레이더 성능개량 및 대공유도탄(HARM) 장착등 전반적인 항공전자 계통이 개선 보강된 최신형 항공기이다

# 동 서 남 북

# 칼 라 화 보

▼ F-16의 총 생산대수(1990년말 현재)는 2천8백여대로서, 세계 16개국에서 운용되고 있다. 향후 5백여대가 추가생산될 것이다





**\* 표지이야기**

우리 軍의 전력증강과 국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'85년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한국 전투기사업(KFP)의 주력기종이 美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F-16 Fighting Falcon으로 최종 선정되었다. 1994년부터 1백20대가 기술도입 생산될 것이다.



## 월간 國防과技術

창 간 1979. 1. 1  
 등록번호 라-2849  
 발행인 柳 纘 佑  
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 
 편집인 羅 柄 扇  
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
 인쇄인 金 思 鴻  
 천일인쇄사 대표  
 발행소 121-042  
 서울 마포구 도화2동 51-1  
 (星宇빌딩 13층)  
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
 ☎ (02) 716-0155  
 FAX (02) 716-1132  
 편집자 김 영 태  
 도안수정 김 명 일  
 전산사식 정 현 욱  
 분해·제판 장 윤 태  
 사식도안 대일컴퓨터 ☎ 273-5336  
 인쇄 천일인쇄사 ☎ 266-4687